

문화전당장 5번째 공모도 결국 무산

문화부 “과열된 지역 여론 고려 선임 잠정 보류...옛 도청 복원은 차질없이 추진”

亞문화수도 조성위원장·亞문화원장 등 기관장 공석도 장기화...업무 공백 심화

개관 2년째 공석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초대 수장을 선임하기 위한 다섯 번째 전당장 공모도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선임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해 수장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광주 문화수도 조성의 컨트롤 타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문화전당 운영을 일부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 원장 등 3대 문화 기관장의 공석도 장기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실시한 5차 공모에서도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과열된 지역 여론을 고려해 문화전당장 선임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은 당분간 방선규 전당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된다.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를 비롯한 전당 관련 현안 과제들은 직무대리체제에서 문제부와 협의해 처리하게 된다. 문제부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 복원은 약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통합 및 전당장 선임문제는 국회 등 관련 기관, 지역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5차 전당장 공모를 진행한 인사혁신처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3명 후보를 11월 문제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서류전형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 압축설, 내정설이 나돌았다. 또, 5월 단계와 예술인 단계들이

특정 인사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거나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지역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일각에서는 5월 포용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에서 전당장 선임으로 논란이 일 경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5차 공모를 무산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일찍이 제기됐었다.

문제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전당장을 선임할 경우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전당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불가피하게 선임 절차를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전당장 선임이 또다시 무산되자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기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문화전당 정상화와 옛전남도청복원 등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데 새정부에서도 전당장 공모가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장 공모 무산의 1차적 책임은 안일하게 대응한 문제부에 있지만 지역에서 전당장 선임을 두고 특정 세력과 진영이 지나칠 정도로 관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전당장 선임에도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거점이다. 지난 2015년 11월 문을 열었으나 지금까지 초대 전당장을 뽑지 못해 2년 이상 전당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은 지난해 3월, 아시아문화원장은 지난해 11월 임기 만료됐으나 선임되지 않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北, 고위급 회담 수용여부 고민

판문점 연락 채널 복원 이틀째

판문점 연락 채널이 4일 복원 이틀째를 맞았지만, 남북 간 고위급 회담개최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전당장 공모 무산의 1차적 책임은 안일하게 대응한 문제부에 있지만 지역에서 전당장 선임을 두고 특정 세력과 진영이 지나칠 정도로 관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전당장 선임에도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오후 4시 30분께 우리측에 ‘업무를 마감하자’고 해 오늘 업무가 종료됐다”면서 “북측과 회담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부터는 남북이 우리의 고위급회담 9일 개최 제안과 관련, 일정과 의제, 형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2일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다음 날인 3일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과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실무적인 대책들을 사급히 세우게 해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다”고 말했다.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 ‘사급히’ 등의 표현을 쓴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속도감 있게 협의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에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런데도 북한의 답변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우선 아직 회담의 의제와 형식,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년 만의 남북 당국회담인 데다 이번 회담의 분위기가 향후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우리의 고위급회담 제의를 전반적으로 수용할지, 수정 제의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듯하다”면서 “오래 걸리면 김정은의 결단에 먹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중에는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북한이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의 목적으로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연남뉴스

영산호 일원에 마실길 조성

전남도농업박물관

영암군 삼호읍 나불도 영산호관광지 일원에 마실길이 조성된다.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영산호관광지의 관광지원 및 생태자원을 활용해 영산호와 농업박물관, 농업테마공원을 연계한 마실길을 조성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마실길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며, 1단계 구간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기존 및 신규 산책로를 연계한 약 1km코스를 개발, 최근 개통했다.

2단계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국비와 도비 등 10억원의 투입, 1단계 연계코스를 확대해 총 4km의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900만명이 순천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최근 순천만 습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용산전망대에서 낙조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순천 관광객 1000만 시대 눈앞

순천만·국가정원 등에 지난해 906만명 다녀가

순천시의 지난해 관광객이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순천시는 자연과 생태 정원을 기반으로 한 전국 최초 국가정원 1호와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 등 유명 관광지의 인기로 힘입어 지난해 90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791만 명에 비해 114만 명(14.5%)이 증가한 것으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관광객이 많이 다녀

간 주요 관광지는 순천만 습지를 포함한 순천만 국가정원이 611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안읍성 103만5000명, 드라마촬영장 73만7000명, 선암사 29만1000명, 송광사 17만2000명 순이다.

이 가운데 낙안읍성은 2016년 86만6055명에서 19.5%가 늘었다. 또 드라마촬영장 14.2%, 국가정원 12.6%가 1년 사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만 국가정원 및 습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잠정 폐

쇄했지만, 봄꽃 축제·여름 물빛축제·가을 정원갈대축제·겨울 별빛축제 등 4계절 축제의 차별화와 다양한 행사개최로 전체 관광객은 늘었다.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관광객 600만 명을 돌파해 전국적으로 단일 유료 입장 관광지의 성공사례로 기록됐다. 낙안읍성의 경우도 4년 만에 방문 관광객 100만 명을 회복했다.

한편, 순천시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2019년을 ‘순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올해는 순천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와 홍보 기반구축 등 관광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kim@

‘삼국사기’ 국보 된다...문화재청 지정 예고

현재 전해지는 국내 최고(最古) 역사서인 ‘삼국사기’가 최초로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525호와 보물 제723호로 지정된 ‘삼국사기’를 각각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삼국사기 가운데 국보는 없었지만 이번 지정으로 국보 지정 첫 사례가 된다. 두 권의 ‘삼국사기’는 총 9책의 완본으로 고려~조선 초기 학술 동향과 목판 인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김부식이(1075~1151)이 고려 인종 23년(1145)에 편찬한 ‘삼국사기’는 국가 주도로 편찬한 역사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 등이 수록돼 있다.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도 국보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삼국유사’는 조선 초기 판본으로, 5권 중 권1~2권만 남아 있으나 결장(缺卷)이 없는 완전한 인출본이다. 1512년 간행한 ‘삼국유사’ 중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

보완하고 현존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 스님이 총령왕 7년(1281)에 고조선부터 후삼국의 설화 등을 종합한 역사서로 한국 고대사 연구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미 국보로 지정돼 있는 2건의 다른 ‘삼국유사’와 대등한 가치가 있는 사료로 평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필 미인도’ 등 신윤복 그림 1점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돈 불분 대출

(주)동현태양광대부 대표 최대성, 동학번호 2016-금강원 062, 법정의자를 2억 2794(월 2.3%) 이내, 추가비용 없음, 초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동학번호명주소: 광주광역시 주서: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속삭~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소당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 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500㎡ 매 24억
- 장덕동 3층 원룸 대291㎡, 건485㎡ 매 7억(보1억 월318만)
- 장덕동 3층 원룸 대262㎡, 건400㎡ 매 8.5억(보3천만 월402만)
- 산정동 4층 원룸 대455㎡, 건660㎡ 매 13.7억(보8천 월591만)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대192㎡, 건490㎡ 매 9.5억

토 지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농지,참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 (모텔허가 득)
- 담양군 대전면 성신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 (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